

학위논문

다산 정약용의 주역 연구

강 현 옥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철학전공

2024년 4월

유성선 교수 지도
문학사 학위논문

다산 정약용의 주역 연구

A study on the Book of changes of Dasan Jeong
Yak-yong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철학전공

강 현 욱

목 차

I. 서론

II. 「복서통의」 속 복서

II - i. 복서의 연원

II - iii. 「복서통의」 속 복서의 사례

II - iv. 「복서통의」 속 복서의 의미

III. 「당서괘기론」 속 한대 역학 비판

III - i. 맹희의 4정괘와 12월괘설

III - ii. 맹희의 12월괘설

III - iii. 경방의 분괘직일법과 육일칠분법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역학(易學) 역(易)을 학리적(學理的)으로 탐구하는 유학의 한 갈래이다. 역학의 경전인 『주역(周易)』은 『역경(易經)』과 『역전(易傳)』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자(孔子, B.C. 551~B.C. 479)에 따르면, 『역경』의 저자는 상고시대(上古時代)에 복희(伏羲), 문왕(文王, B.C. 1152~B.C. 1056), 무왕(武王, 미상~B.C. 1043), 주공(周公, 미상)이다. 『역경』은 복서(卜筮)에서 기원한 점서(占書)이다. 점서는 고대인이 신성시하는 예식이었던 만큼 『역』 안에는 당대 인류의 정성과 지성이 담겨있다. 특히, 오늘날 의미를 상실하다시피 한 점(占)과 달리, “임금 앞에서 점대를 거꾸로 하거나 귀갑을 기울이면 주살하였다”¹⁾고 할 정도로 고대인은 복서를 중요시했다.

복(卜)은 귀갑점(龜甲占)을, 서(筮)는 시초점(蓍草占)을 나타낸다. 이는 천명(天命)을 받는 정성스러운 예식이었다. 복서 중 ‘서’인 시초점은 수학적 연산으로 괘효(卦爻)를 얻는데, 『역경』은 그 괘효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한 책이다. 즉 『역경』은 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서는 복의 대체재로 등장한 만큼, 『역경』에는 복의 영향도 존재한다. 따라서 『역경』의 연원에 대해 말할 때 복서를 함께 탐구해야 한다.

1) 『易學緒言』, 「卜筮通儀」, “倒筮側龜於君前, 有誅.”

이후 전개된 한역(漢易)은 크게 세 학파로 분류된다. 첫째, 맹희(孟喜, 미상)·초연수(焦延壽, 미상)·경방(京房, B.C. 77~B.C. 37)이 대표하는 관방(官方)역학이다. 이 학파는 역학 방법으로 괘상(卦象)과 『주역(周易)』의 몇몇 숫자를 연구해서 후대에 상수학파(象數學派)라고 불린다. 상수학파는 자연과 인류의 변화가 괘상의 변화와 일치한다고 보아, 팔괘(八卦)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고 여겼다. 즉, 팔괘의 변화 법칙을 알면 국가의 흥망과 개인의 길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직(費直, 미상)으로 대표되는 의리학파(義理學派)이다. 의리학파는 『역전(易傳)』의 글을 근거로 하여 경문을 해석하고 의리를 천명하고자 했다. 특히 한대 초기에 「단전(彖傳)」, 「상전(象傳)」, 「문언전(文言傳)」의 『역경(易經)』 해석 전통을 계승하여 모두 의리를 중시했다. 셋째, 도가황로학(道家黃老學)과 결합하여 음양변역(陰陽變易)을 천명하는 학파이다. 엄군평(嚴君平, 미상)과 양웅(楊雄, B.C. 53~A.D. 18)이 대표 학자인데, 이들은 『도덕경(道德經)』을 해석하는데 『주역』의 글을 인용했다. 그러나 의리학파와 도가황로학파는 역학사에서 서로 뒤섞인 소수 학파였다. 의리학파는 위진시대의 왕필(王弼, 226~249) 대에 이르러야 제대로 확립된다.²⁾

한역의 주류인 상수학파는 괘기설(卦氣說)을 통해 『주역』을 해석한다. 괘기설은 1년, 4계절, 4정괘, 12개월, 24절기, 64괘배72후(六十四卦配七十二侯), 365일 등의 역상수(曆常數)와 『주역』의 괘효(卦爻)를 결합해 우주와 자연세계를 합일적으로 설명한 이론이다.³⁾ 맹희는 최초로 괘효와 역법을 결합한 괘기설을 제시했다. 그의 역학의 주 내용은 4정괘(四正卦), 12월괘설, 64괘배72후설이다. 맹희의 역학은 초연수에게 전해지고, 초연수는 경방에게 다시 역학을 전수했다. 경방은 8궁, 오행, 음양, 납갑 등의 설을 괘기설과 한역의 상수역학과 함께 결합하여 상수학파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⁴⁾ 특히 맹희의 4정괘와 12월괘설의 괘기설은 역법(曆法)을 다루는 분괘직일법(分卦直一法)으로 발전한다. 분괘직일법은 괘를 나누어 절기와 날짜에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후 경방은 맹희의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육일칠분법(六日七分法)을 추가하여 독창적인 분괘직일법을 제시한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역학서언(易學緒言)』 중 「복서통의(卜筮通義)」에서 복서(卜筮)의 의미에 대하여 정리했다. 「복서통의」는 『주역』이 성립된 이후, 역학(易學)이란 학문체계로 정립된 학설을 논구했다기보다 점(占)의 원형적 형식인 ‘복과 서’에 관한 예법과 의식절차 및 사례, 그리고 복서의 의미에 관해 연구한 책이다.⁵⁾ 이후 정약용은 「당서괘기론(唐書卦氣論)」에서 한역을 비판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정약용의 연구를 탐구하여 『주역』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쌓을 것이다.

Ⅱ. 「복서통의」속 복서

2) 廖名春 외 저,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5년, 163~165쪽.

3) 이난숙, 「「당서괘기론」에 담긴 정약용의 중국역학 비판 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儒學研究』 제34호, 2016, 117쪽.

4) 廖名春, 앞의 책, 174~175.

5) 이난숙, 「「卜筮通義」에 담긴 정약용의 ‘卜筮’에 관한 인식」,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제52집, 2018, 4쪽.

II - i . 복서의 연원

귀갑점은 은(殷)나라 말기에 이미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가 잡힌 오래된 점법(占法)이다. 귀갑점은 거북의 등껍질이나 배껍질을 불로 가열해 갈라지는 형상을 보고 길흉을 판단한다. 그 후 길흉을 판단한 것과 그 결과를 갑골 무늬 옆에 기록했는데 이것이 복사(卜辭)이다. 그리고 복인(卜人)은 이 복사가 실제로 효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험사(驗辭)이다. 하지만 점치는 용도로 사용할 거북의 공급이 적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소, 사슴, 호랑이와 같은 동물의 두골(頭骨)이나 견갑골(肩胛骨)로 점을 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周)나라 대에 설시법(揲蓍法)으로 점을 치는 시초점이 등장했다. 대나무 시초를 이용해 수의 변화를 통하여 괘(卦)를 정했고, 『역경』의 괘상(卦象) 및 괘효사(卦爻辭)에 따라 길흉을 예측했다. 특히 『역전』 중 「계사전」에는 대연수(大衍數) 50을 시작으로 시초를 분리하여 괘상(卦象)을 구하는 시초점의 방법이 나와 있다.

그러나 사마천(司馬遷, B.C. 145~미상)의 『사기(史記)』 중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따르면, 하·은·주 삼대는 거북으로 점치는 방법이 같지 않았고, 사방의 오랑캐들도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점을 쳤다.⁶⁾ 즉 귀갑점은 자의적이었고 우연성에 의존한다. 반면, 시초점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역수(易數)를 활용한다. 그리고 효(爻)와 괘(卦)를 얻고 『역경』에 기록된 괘효사로서 점의 결과를 해석했다. 이것은 형상을 중시하던 거북점의 추상적인 점법을 탈피하여 수에 기초한 객관적인 점법으로의 변화로, 수리적 세계관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II - iii . 「복서통의」 속 복서의 사례

정약용은 역수(易數), 역상(易象), 역리(易理), 역도가 『주역』의 경의(經義)를 정확히 파악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수와 역상, 그리고 역리에 모두 정통한 학자였다.⁷⁾ 정약용은 「복서통의」에서 역대의 중국 문헌들을 탐구하여 복서의 사례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서의 의미를 정립하기에 이른다.

먼저 정약용은 복과 서를 치는 각각의 사례를 모아 정리했다. 정약용에 따르면 임금을 옹립하는 것, 넓은 봉토를 정하는 일과 같은 큰일과 국가의 큰 천도, 군사의 큰 움직임 같은 작은 일, 그리고 군사의 일과 상사(喪事)를 귀갑점 쳤다.⁸⁾ 이 외에도 질병에 관한 점, 물과 가물에 관한 점, 태일의 점, 일월에 관한 점, 잉태와 출산에 관해 점칠 때 귀갑점을 시행했다.⁹⁾ 한편, 정약용은 『주례(周禮)』 중 「서인(筮人)」, 「태복(太卜)」, 「사관례(士昏禮)」, 「위풍(衛風)」과 『좌전(左傳)』의 사례를 모아 시초점을 치는 경우를 정리했다.¹⁰⁾ 시초점은 관직을 정하거나, 제후

6) 『史記』, 「太史公自序」, “三王不同龜, 四夷各異卜, 然各以決吉凶.”

7) 이난숙, 앞의 글, 6쪽.

8) 『易學緒言』, 「卜筮通儀」, “凡國大貞, 卜立君, 卜大封, 則眡高作龜. 凡小事, 涖卜. 國大遷, 大師, 則貞龜. 凡旅, 陳龜. 凡喪事命龜. 【周禮·春官】”

9) 이난숙, 앞의 글, 25쪽.

10) 『易學緒言』, 「卜筮通儀」, “周禮·筮人 : “九筮, 八曰巫參.” 【鄭玄云: “筮御與右.”】 此立官之占也. 周禮·太卜 : “大封則眡高作龜.” 【此封建】 周禮·筮人 : “九筮, 三曰巫式. 【筮制作法式】 五曰巫目. 【筮所改易之事】” 此建侯立法, 皆有占也. 士昏禮 , 問名曰: “某既受命, 將加諸卜.” 納吉曰: “某加諸卜, 占曰吉.” 【出<記>文】 <衛風>: “爾卜爾筮, 體無咎言.” 【此<氓>詩】 左傳, 晉獻公筮嫁伯姬. 史蘇占之, 曰: “不吉.” 【僖

를 세우거나, 아내를 맞이하고 시집보내거나, 빈객을 세우고 시동을 세우거나, 뭇자리를 정하는 점 등에 사용하였다.¹¹⁾ 반면, 복서를 함께 점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은 임금을 옹립하는 점, 제사의 점, 일월에 관한 점, 잉태와 출산의 점, 장지를 정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¹²⁾

예를 들어 「복서통의」에는 시초점의 구체적인 사례로, 사당 문에서 치르는 관례(冠禮, 성인식)에 대하여 “시초점을 치는 사람은 함께 동쪽을 보고 러점(旅占)을 마치고 나서 나아가 길함을 고한다. … 만일 불길하면 10일 후에 시초점을 치되, 처음의 의식과 같게 한다.”¹³⁾라고 적혀 있다. 이 외에도 「복서통의」는 ‘망자의 뭇자리를 정하는 시초점(士喪筮禮)’을 치는 방법이나 귀갑점을 쳐야 하는 경우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사당 문에서 치르는 관례는 시초점은 한 번만 시행한다는 상식과 맞지 않는다. 정약용은 이것이 고대엔 관·혼·장·제(冠·昏·葬·祭) 모두 길일을 점치고 빈객을 점치는 서례(筮禮)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⁴⁾ 단, 장례는 빈객은 점치지 않고 길일만을 점쳤고, 혼례는 중요한 일이므로 거복점을 치기도 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재례(再禮)를 행하는 것은 자기 예언적인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대인의 의식과 마음가짐을 보면, 길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을 미루는 방식으로 우환(憂患)을 제거하고자 했을 것이다.

한편 정약용은 복서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정리했다. 정약용에 따르면, 복서를 행하는 방법은 백성보다 앞서서 천명을 품부 받아 활용하려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일이 비록 바르지라도 성패가 쉽게 구분된다면 귀복점 치지 않았다. 이로움이 비록 분명해도 의리가 진실하지 않은 것 또한 귀복점을 치지 않았다. 오직 여러 올바름을 상고하고 비록 바르더라도 그 성패와 행운 또는 불운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점을 쳤다.¹⁵⁾ 추가로 ‘일이 비록 바르지라도’라는 표현을 보면, 애초에 바르지 않은 일은 복서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이 바르더라도 의리가 바르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은 일의 목적이 바르더라도 그 수단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은 복서는 행위 목적(결과)이 올바르고 행위 주체의 동기도 올바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II-iv. 「복서통의」 속 복서의 의미

정약용은 먼저 『예기(禮記)』를 발췌하여 복서의 의미를 정리한다. 그중 「표기(表記)」편에서 공자(孔子, B.C. 551년~B.C. 479년)에 따르면, 옛날 삼대의 명왕(明王)들은 모두 천지의 신명을 섬겼고, 거복점과 시초점을 사용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감히 그 사사롭고 더러운 마음으로는 상제(上帝)를 섬기지 않았다. 이로써 일월을 범하지 않았으며, 복서를 위반하지 않았다. 큰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작은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이 시초점을 쳤다. 밖의 일은 강일(剛日)에 하고, 안의 일은 유일(柔日)을 정해 사용했으며, 복서를 어기지 않았다.¹⁶⁾ 즉, 고대인

十五年】崔杼欲娶棠姜，筮之。陳文子曰：“不可娶。”【襄二十五年】此婚嫁之占也。”

11) 이난숙, 앞의 글, 25쪽.

12) 이난숙, 앞의 글, 25쪽.

13) 『易學緒言』, 「卜筮通儀」, “書卦，執以示主人。主人受眊，反之。筮人還，東面旅占，卒，進告吉。…若不吉，則筮遠日，如初儀。”

14) 『易學緒言』, 「卜筮通儀」, “古者冠昏葬祭，皆筮日筮賓。”

15) 『易學緒言』, 「卜筮通儀」, “總之，卜筮之法，其始也。稟天命以前民用也。事雖正而成敗易分者，不卜。利雖明而義理不允者，不卜。唯考諸義而雖正，其成敗利鈍有不明者，於是乎有占也。”

들은 점의 결과를 상제의 뜻이라 보고 무조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예기의 기록을 보아 고대의 점이 청명(聽命)의 행위이고, 천지신명(天地神明)을 섬김으로써 상제를 섬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¹⁷⁾ 따라서 정약용이 보기에 신을 섬기는 마음가짐 없이 사건에 마주하여서야 복서를 치는 것은 성패를 탐색하는 것이니 하늘을 업신여기고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¹⁸⁾

한편, 정약용은 『예기(禮記)』중 「곡례(曲禮)」편에서도 복서의 의미를 찾는다. 「복서통의」에 따르면, 복서는 선대 성왕이 백성들이 시일을 믿게 하고, 귀신을 공경해 법령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서는 백성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걸 결단하게 하고, 미루는 일을 결정하게 한다.¹⁹⁾ 즉 복서는 본래 통치자가 백성들을 통제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진(秦)·한(漢) 시대 이후 복서가 사된 술수에 빠져들어 통치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말한다.²⁰⁾ 한대의 학자 가의(賈誼, B.C. 313년~238년) 또한 당시 점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재주를 바탕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어 재물을 빼앗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천한 무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²¹⁾ 『예기』 「왕제(王制)」편에서도 귀신, 시일, 복서를 빌어 민중을 의혹시키는 자는 죽였다고 하는데, 정약용은 이것이 바르다고 평가했다.²²⁾ 「왕제(王制)」에 따르면, 죽어야 하는 네 가지 죄는 첫째, 이단사도로 정사를 어지럽히는 것, 둘째, 이상한 음악, 의복, 기예, 기물을 만들어 사람들을 의혹시키는 것, 셋째, 궤변을 하거나 아는 바가 부족한데 꾸미어 대중을 의혹시키는 것, 넷째, 귀신과 시일(侍日), 복서에 의탁해 사람들을 의혹시키는 것이다.²³⁾ 즉 복서를 왜곡하는 것은 앞선 세 가지 죄와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였다. 그리고 앞선 세 죄가 사회를 분열하고 통치를 방해하는 것임을 볼 때, 고대인들은 복서를 왜곡하는 것 또한 동류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기(禮記)』중 「소의(少儀)」편에서도 복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약용에 따르면 복서를 칠 때는 두 번 묻지 않으며, 옳은 것인지 사사로운 것인지 먼저 물어보았다고 한다. 옳은 것이면 점을 치고, 사사로우면 점을 치지 않았다.²⁴⁾ 즉, 복서를 치기 위해서는 그 의도가 사사롭지 않고 올바른 도덕적이어야만 했다. 정약용은 이 ‘올바름’은 천리(千里)를 헤아려 합하는 것이라 했다. 그에 따르면, ‘사사로움’이란 의지적으로 내 마음이 가는 바이고, 「소의」에서 말한 ‘올바름’은 『역(易)』에서 무릇 ‘바름이 이롭다[利貞]’, ‘바름이 길하다[貞吉]’라고 하는 종류의 뜻이다. 나아가 ‘정(貞)’²⁵⁾은 바른 일이고 옳음에 합당하다.²⁶⁾

16) 『易學緒言』, 「卜筮通儀」, “子言之: 昔三代明王, 皆事天地之神明, 無非卜筮之用, 不敢以其私褻事上帝. 是以不犯日月, 不違卜筮. 卜筮不相襲也. 大事有時日, 小事無時日, 有筮. 外事用剛日, 內事用柔日, 不違龜筮.”

17) 『易學緒言』, 「卜筮通儀」, “古人事天地神明, 以事上帝. 【《中庸》曰‘郊社之禮, 所以事上帝’, 亦此義】 故卜筮以聽命.”

18) 『易學緒言』, 「卜筮通儀」, “今人平居既不事神, 若唯臨事卜筮, 以探其成敗, 則慢天瀆神, 甚矣.”

19) 『易學緒言』, 「卜筮通儀」, “卜筮者, 先聖王之所以使民, 信時日, 敬鬼神, 畏法令也. 所以使民決嫌疑, 定猶豫也.”

20) 이난숙, 앞의 글, 15쪽.

21) 朱伯崑 저, 김학권 역, 『주역산책』, 예문서원, 2011년, 21쪽.

22) 『易學緒言』, 「卜筮通儀」, “曰: “假於鬼神, 時日, 卜筮以疑衆者, 殺.” 【《王制》者, 漢初所作】 今人立法, 當以 王制 爲正.”

23) 『禮記』, 「王制」, “析言破律, 亂名改作, 執左道以亂政, 殺. 作淫聲, 異服, 奇技, 奇器以疑衆, 殺. 行僞而堅, 言僞而辯, 學非而博, 順非而澤, 以疑衆, 殺. 假於鬼神時日, 卜筮以疑衆, 殺. 此四誅者, 不以聽.”

24) 『易學緒言』, 「卜筮通儀」, “不貳問. 問卜筮, 曰: “義與, 志與?” 義則可問, 志則否.”

25) 여기에서 ‘정(貞)’은 이정(利正)과 정길(正吉) 등에 있는 ‘정(貞)’자로 바른 일, 옳음을 뜻한다.(이난숙, 앞의 글, 16쪽)

26) 『易學緒言』, 「卜筮通儀」, “義者, 揆諸天理而合者也. 志者, 吾心之所之也. 『易』凡云‘利貞’·‘貞吉’之類,

III. 「당서괘기론」의 한대 역학 비판

III-i. 맹희의 4정괘와 12월괘설

맹희는 64괘로 1년의 절기(節氣) 변화를 해설하여, 감·진·리·태(坎·震·離·兌)의 4정괘로 사계절을 주관하게 하고, 사계절을 4방(四方)에 배당했다. 예를 들어, 맹희는 “감괘는 음이 양을 싸므로 저절로 북정(北正)이다. 미약한 양이 아래에서 운동하여 올라가되 채 도달하지 않고, 2월에 극하여 응고의 기가 소멸하면 감의 운이 끝난다.”라고 말했다.²⁷⁾ 양을 싸고 있다는 것은 감괘(坎卦)의 괘상(卦象)이 위아래가 음효(陰爻), 중앙이 양효(陽爻) 이므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북정은 「설괘전」의 팔괘방위설(八卦方位設)에서 감괘가 정 북방에 위치한 것을 말한 것이다. 초육효는 음기가 옴트는 것이므로 11월 동지(冬至)를 나타낸다. 그리고 2월이 되면 상육효는 음기가 다하는 것이므로 날이 풀리는 2월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4정괘 각각은 사계절을 주관한다. 그리고 사정괘의 총 효수인 24개의 효는 각기 24절기와 대응한다. 이는 홀수와 짝수를 가지고 음양을 해석하고, 괘상에서도 기수(奇數)와 우수(偶數)로 음양의 소장 과정을 해석한 것이다.²⁸⁾

주목해야 할 점은 맹희가 4정괘를 사방에 대입한 근거가 「설괘전」의 팔괘방위설에 있다는 것이다. 본래 팔괘방위설에서 그린 것은 중첩되지 않은 팔괘 즉 소성괘(小成卦) 감·진·리·태(☵·☳·☲·☱)이다. 하지만 경방은 팔괘가 아닌 중괘(重卦)인 중수감(重水坎 ☵), 중뢰진(重雷震 ☳), 중화리(重火離 ☲), 중택태(重澤兌 ☱)를 사방에 대입한다. 정약용은 아래와 같이 이를 지적한다.

<정약용案> 감·리·진·태괘는 8괘의 때에 있으면, 비록 동·서·남·북을 주관하지만 이미 중괘가 되면 다시 4방위(동·서·남·북)의 괘로 명명할 수 없다. 이 4개의 괘(소성괘)를 빼고 사계절을 주관한다고 하면 이미 이치가 아니게 된다. 하물며 효란 괘를 변하게 하니 육효는 육획이 아니니, 어찌 한 효가 하나의 기에 짝이 될 수 있겠는가?²⁹⁾

정약용이 ‘효란 괘를 변하게 한다’라고 말한 것은 변효(變爻)를 지정한 것이다. 효가 변하니 육효는 외관상 육획일 뿐 의미상으로는 육획이 아니다. 따라서 4정괘의 각 효는 하나의 절기에 대응할 수는 없다. 따라서 24개의 효가 24개의 절기에 대응한다는 맹희의 주장도 지나치

皆是「少儀」之義.”

27) 『曆義』, 「卦議」, “坎以陰包陽, 故自北正, 微陽動於下, 升而未達, 極於二月, 凝滯之氣消, 坎運終焉.”

28) 廖名春, 앞의 책, 178쪽.

29) 이난숙, 앞의 글, 120쪽 재인용(『唐書卦氣論』, “鑄案, 坎·離·震·兌, 其在八卦之時, 雖主四方. 既爲重卦, 不得復以四方之卦名之. 除此四卦, 使主四時, 已屬非理. 況爻者, 變卦也. 六爻非六畫, 安得以一爻配一氣哉?”).

게 단순하며 효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III - ii . 맹희의 12월괘설

맹희의 괘기설 중 둘째는 12벽괘(辟卦)가 1년(12월)을 대표한다는 12월괘설이다. 고대 중국의 역법은 1년을 4계(季)로, 1계를 3월(月)로, 1월을 2기(氣)로, 1기는 3후(候)로, 1후는 5일(日), 1일은 80분(分)으로 나누었다. 맹희는 4정괘를 제외한 60괘를 나누어 72후에 배당했다. 그리고 이 60괘를 벽(辟)·공(公)·후(侯)·경(卿)·대부(大夫)로 오등분하여 5조로 하고 조마다 12괘를 배당했다. 그리고 60괘는 72후에 비해 12개 부족하므로 부족한 12괘는 후괘(候卦)를 가지고 보충했다.

앞선 복잡한 설은 맹희 이전에 비롯한 듯하지만, 12벽괘는 맹희가 새로이 만든 것이다. 맹희는 복(復 ䷗)·임(臨 ䷒)·태(泰 ䷊)·대장(大壯 ䷡)·괘(夬 ䷪)·건(乾 ䷀)·구(姤 ䷫)·둔(遯 ䷠)·비(否 ䷋)·관(觀 ䷓)·박(剝 ䷖)·곤(坤 ䷁)괘의 12개의 괘로 12월을 나타냈다. 12벽괘는 64괘의 순서와 무관하게 각 월의 변화를 음양의 효로 나타내도록 재구성되었다. 12벽괘는 시간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상징하기에 소식괘(消息卦)라고도 한다.³⁰⁾ 정약용은 「계람도(稽覽圖)」의 내용을 발췌해 「당서괘기론」에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서목총람(書目總攬)』『易』의 종류 가운데 「계람도(稽覽圖)」 2권이 있다. 총론에서 “서두에 말하기를, 괘기는 중부괘부터 시작되고, 감(坎)·리(離)·진(震)·태(兌)괘를 4정괘라고 했다. 60개의 괘가 육일칠분을 주관한다. 또 복(復)괘부터 곤(坤)괘까지 12괘가 소식(消息)하고, 나머지 잡괘가 공(公)·후(侯)·경(卿)·대부(大夫)괘를 주관한다. 바람·비·추위·더위[風·雨·寒·溫]가 징험으로 응한다고 한 것은 곧 맹희와 경방의 학문이다.”³¹⁾

여기서 『서목총람』은 맹희와 경방 역학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다. 경방은 맹희의 학설을 받아들여 공통으로 4정괘를 제외한 60개의 괘 중 12괘를 벽괘로 구분하고, 나머지 괘를 잡괘(雜卦)라고 분류했다. 벽괘에서 벽(辟)은 군주의 지위를 상징한다.³²⁾ 그러므로 벽괘는 군주의 괘라고 생각된다. 잡(雜)은 잡스럽다는 의미이다. 잡괘는 잡스러운 괘라고 해석된다. 또한, 앞선 5조의 조명은 모두 지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각 조에 속해있는 괘들 또한 각기 벽·공·후·경·대부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된다. 밝힌 내림차순의 직위명으로 구성된 5조를 미루어 보면, 64괘 가운데 서열이 존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정약용도 다음과 같이 맹희와 경방을 비판한다.

30) 廖名春, 앞의 책, 178~180쪽.

31) 이난숙, 앞의 글, 111쪽 재인용(「唐書卦氣論」, “書目總 易 類中, 有 稽覽圖 二卷. 其摠論曰: “首言卦氣起中孚, 而以坎·離·震·兌爲四正卦. 六十卦主六日七分. 又以自復至坤十二卦爲消息, 餘雜卦主公·卿·侯·大夫候. 風雨寒溫, 以爲徵應, 卽孟喜·京房之學. 【今 四庫全書 書目所記, 亦如此】”).

32) 廖名春, 앞의 책, 178쪽.

사시의 괘는 12개이고, 재운괘는 2개이다. 여기에서 연(衍)을 받은 것은 그 지위가 서로 균등한데, 또 어찌 공·후·경·대부의 품급이 있을 수 있겠는가? 벽괘라는 이름은 고대부터 그것이 있었다. 초공과 경방 등은 이런 학설을 망령되이 제기하여 건강부회하고 화사첨족하여 역도의 바름을 해쳤으니[紫鄭]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 【경방의 학문은 맹희에 가탁되어 있지만, 직일법은 맹희부터 시작되지 않았다】³³⁾

정약용에 따르면 모든 괘는 그 지위가 서로 균등하다. 그러므로 맹희와 경방이 괘를 지위로 분류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앞선 정약용의 지적처럼 4정괘는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맹희의 분괘직일법은 4정괘를 제외한 시점에서 이미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볼 수 있다. 또한 정약용은 고대부터 벽괘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앞서 맹희가 12벽괘를 처음 만들었다는 廖名春의 주장과 모순된다.

III-iii. 경방의 분괘직일법과 육일칠분법

경방은 맹희와 다르게 괘효를 1년의 하루씩 배당하는 분괘직일법을 주장했다. 맹희의 분괘직일법은 60괘 360효를 1년의 일수에 대입하는 것이었으나, 경방은 4정괘도 1년의 일수에 넣어 384효를 1년의 일수에 배당했다.³⁴⁾ 4정괘의 초효는 각기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을 주관하는 효로 각각 1일과 73/80을 맡는다. 이(頤 ䷚)·진(晉 ䷢)·승(升 ䷭)·대축(大畜 ䷙) 4개의 괘는 각각 5일 14분을 맡는다. 그 나머지 괘, 즉 다른 56개는 6일 7분을 맡는다.³⁵⁾ 그러나 이 분괘직일법에는 역법의 일수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선 방식대로 일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4정괘의 초효 네 개는 7.65일을 주관한다. 합하면 이·진·승·대축괘는 20.7일을 담당한다. 다른 56개의 괘를 모두 합하면 340.9일이 된다. 그리고 이를 모두 더하면 1년은 369.25일이 된다. 이러한 경방의 분괘직일법에는 실제로는 384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4정괘의 24개의 효 중 각각의 초효만을 이용하여 남은 20개의 효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경방은 육일칠분법(六日七分法)을 만들어 1년 약 365.25일과 주역의 384효를 맞추고자 했다. 4정괘의 24효는 절기를 순서대로 주관하니, 즉 한 괘의 여섯 효에서 매 효가 한 절기씩을 주관한다. 사정괘를 제외하고 남은 60괘는 12개 조로 나누어져 5개의 괘가 한 조가 되며, 각 조는 12달에 배치된다. 60괘의 360효를 360일에 배당하여, 1효가 1일을 주관하게 한다. 1년에서 360일을 빼면, 5일과 1/4이 남는다. 1일은 80분이므로, 5일은 400분이 된다. 1/4일은 20분이므로 총 420분이 남는다. 이 420분을 60괘로 나누면 7이므로 괘마다 7분을 더해서 1년을 계산했다.³⁶⁾ 그리하여 한 괘가 육일하고도 7분을 추가로 담당한다고 하여 육일

33) 이난숙, 앞의 글, 120쪽 재인용(「唐書卦氣論」, “四時之卦, 十二也, 再閏之卦, 二也. 於此乎, 受衍者, 其位相等, 又安得有公·侯·卿·大夫之品級乎? 辟卦之名, 自古有之. 焦贛·京房之等, 妄爲此說, 附會分排, 畫蛇添足, 爲易道之紫鄭, 不得不辨. 【京房之學, 假託孟喜, 直日之法, 不自孟喜始】”).

34) 廖名春, 앞의 책, 183~184쪽.

35) 廖名春, 앞의 책, 184쪽.

36) 방인, 「경방의 벽괘설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54권, 2014, 24~25쪽.

칠분법이 된다. 이에 따르면 사정괘를 제외한 60괘 중 1괘가 6.0875일을 담당하며 1효는 1.014583일이 된다. 정약용은 이것이 복잡하기만 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64괘는 72절후와 그 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본래 짝으로 배합될 것이 아니다. 반드시 4괘를 버리고, 12괘를 더하여 늘려야 비로소 서로 짝이 맞다. (그런데) 이에 감(坎)·리(離)·진(震)·태(兌)괘를 들어내어 4정괘로 삼고, 그 여섯 효를 24절기에 짝을 맞추었고 이에 둔(屯)·소과(小過)·수(需)·예(豫)·려(旅)·대유(大有)·정(鼎)·항(恒)·손(巽)·귀매(歸妹)·간(艮)·미제(未濟) 등 12괘를 들어 쪼개어 둘로 구분해 두 절후에 배치해서 72개의 수를 만들었다. $[(24+12) \times 2]$ 잘게 부수고 역지로 뒤섞음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다.³⁷⁾

정약용의 견해를 정리하면, 경방의 본괘직일법은 문헌학적 근거가 없고, 길흉재변의 예측에 그 해석을 활용하며, 임의로 변조시켜 체계화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³⁸⁾ 그에 따르면, 본괘직일법은 학문이 아닌 술수이며, 역법(曆法)이 『역』을 상징한다고 오해한 것이다. 역법은 부분적 현상이기 때문에 『역』이 역법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약용은 괘기설이 『주역』의 상(象) 수(數)의 원리를 해석하는 이론이긴 하지만, 경방은 역상(易象)과 역수(易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임의로 일월이 철에 따라 돌아가는 순서와 관련지어 불일치하는 수치를 역지로 맞추었다고 평가했다.³⁹⁾

IV. 결론

정약용의 「복서통의」를 통해 점친다는 행위의 시대적 의미와 무게를 파악하여 『주역』을 이해하는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먼저 복서의 연원과 사례들을 통해 복서의 두 가지 의미를 밝혔다. 첫째, 복서는 형상을 중시하던 귀갑점의 추상적인 점법을 탈피하여 수에 기초한 시초점으로 변화했고 이는 수리적 세계관의 구체화, 즉 인류 지성의 발전이라는 의미가 있다. 둘째, 고대인은 복서를 반복하여 길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행을 미루는 방식으로 우환을 제거하고자 했다. 따라서 복서는 마음에 위안을 주고 결행에 믿음을 주어 긍정적인 자기에언 효과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정약용이 「복서통의」에서 직접 밝힌 복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첫째, 「표기」에 따르면 복서는 하늘을 섬기고 그 명령을 받는 청명의 의미이다. 따라서 복서를 치려면 먼저 신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곡례」에 따르면 복서는 통치자가 백성을 통제하고 백성이 통치자를 믿도록 하는 통치의 의미가 있다. 「왕제」도 복서를 왜곡하는 것은 사회

37) 이난숙, 앞의 글, 127쪽 재인용(「唐書卦氣論」, “論曰, 六十四卦, 七十二候, 厥數不同, 本非搭配之物. 必去四卦, 加增十二, 迺可相配. 於是, 坎·離·震·兌, 黜之爲四正, 以其六爻配之於二十四氣, 【四·六, 二十四】乃執屯·小過·需·豫·旅·大有·鼎·恒·巽·歸妹·艮·未濟等十二卦, 剖之爲兩段, 分配於二候, 以成七十二數. 破碎牽掣, 一至於此!”).

38) 이난숙, 앞의 글, 120쪽.

39) 이난숙, 앞의 글, 128쪽.

분열을 야기하고 통치를 방해하는 중죄로 말했다. 셋째, 「소의」에 따르면 복서에는 천리를 헤아려 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약용에 따르면 복서는 올바른 마음을 갖추고, 올바른 것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올바른 것의 성패가 불확실한 경우에만 칠 수 있다. 즉 복서는 세 조건을 만족하는 합당한 것을 예지하는 것인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 자체가 천리를 헤아리고 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약용 보다 앞서 『주역』을 탐구한 역학자들이 있다. 맹희는 괘기설로 4정괘와 12월괘설을 제시했다. 맹희는 팔괘방위설에서 소성괘 감·진·리·태괘가 북·동·남·서에 대응하는 것에 근거해 중괘인 감·진·리·태괘에도 방위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나아가 4정괘가 사계절을 나타내고 그것의 24효는 24절기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한편 12월괘설은 12벽괘(薛卦)가 1년(12월)을 대표한다는 주장이다. 맹희는 특정한 12개의 괘로 12월을 나타냈다. 이 12벽괘는 64괘의 순서와 무관하게 각 월의 변화를 음양의 효로 나타내도록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12벽괘를 제외한 나머지 60개의 잡괘는 벽·공·후·경·대부의 조로 나누어진다. 정약용은 맹희를 4정괘를 비판하며 소성괘가 중괘는 다르다는 점과 각 괘의 효는 변효이므로 각 효에 고정된 하나의 절기를 대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모든 괘의 직위는 동등하므로 괘를 지위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

한편, 경방은 384효를 365.25일에 대입하는 분괘직일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방은 364효만을 사용하였고 369.25일이 1년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정약용에 따르면 경방은 한 괘가 육일하고도 7분을 추가로 담당한다. 그러나 살펴보면 경방은 60괘 360효를 늘여 365.25일을 맞춘 것일 뿐 384효를 온전히 활용하지 않았다. 정약용은 경방이 역상(易象)과 역수(易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임의로 일월이 철에 따라 돌아가는 순서와 관련지어 불일치하는 수치를 억지로 맞추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약용의 비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정약용은 4정괘의 24괘에 절기를 대입할 수 없는 이유로 효는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외관상 효가 여섯일지라도 의미상으로는 그보다 다양하니 외관만 보고 단순하게 수로 셈하는 것은 『주역』의 의미를 해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변하는 효들이 모여 생기는 괘도 의미가 계속 변해야 한다. 그러므로 효뿐만 아니라 괘도 고정된 절기나 계절에 대응할 수 없다. 결국 정약용의 주장에 따르면 괘나 효를 역법의 무언가에 대응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된다. 나아가 괘효와 효에 대한 사(辭) 또한 무의미하다는 극단적인 논리 전개도 가능해진다.

정약용의 비판을 듣고 맹희와 경방의 괘기설이 무가치한 사상이라 생각해서도 안 된다. 정약용의 비판대로 맹희와 경방의 괘기설은 자의적인 부분이 많고 이를 전하는 책과 논문들 또한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고대 인류는 달력과 시계 없이 농경사회를 유지해야 했다. 이때 주역의 괘상은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함축적이고 직관적인 방침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주역의 상에 집중하여 역법을 정리하고자 한 맹희와 경방의 괘기설은 『주역』에 담긴 성인의 우환의식(憂患意識)을 확충했다는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易學緒言』·「卜筮通義」.

『易學緒言』, 「唐書卦氣論」.

『禮記』·「王制」.

『史記』·「太史公自序」.

『曆義』, 「卦議」.

廖名春 외 저,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5년.

朱伯崑 저, 김학권 역, 『주역산책』, 예문서원, 2011년.

이난숙, 「「卜筮通義」에 담긴 정약용의 ‘卜筮’에 관한 인식」,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제52집, 2018년.

이난숙, 「「당서괘기론」에 담긴 정약용의 중국역학 비판 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儒學研究』 제 34호, 2016.

방인, 「경방의 벽괘설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 54권, 2014.